

농축산물 안정에 광주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로

1월 1.8% ↑ 전국 최저
전남 2.1% 상승세 꺾여

채소 위주 신선식품 둔화
쌀·사과·고등어 등 강세

광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5개 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둔화하면서 전남지역도 2.1%로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3일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1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 소비자물가 지수는 118.0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다. 이는 대구, 충남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9월 2.1%, 10월 2.3%, 11월 2.3%, 12월 2.2%로 2%대를 이어오던 상승률이 5개월 만에 1%대로 돌아왔다.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는데 식품은 2.3%, 식품 이외가 1.5%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 역시 1년 전보다 1.8% 상승했다. 신선야가는 6.9%, 신선과실은 6.6% 오른 반면, 신선제초는 8.7% 내렸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사과(20.9%), 쌀(16.6%), 고등어(17.5%)는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무(-32.4%)와 당근(-47.9%), 국산 소고기(-6.7%)의 가격이 하락했다.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1.3% 상승했다. 경유(2.6%), 기초화장품(8.2%), 여자의 의(4.1%)는 오르고 자동차용 LPG(-6.1%)와 식용유(-17.5%)는 떨어졌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식품과 식품 이외가 각각 2.9%, 1.8%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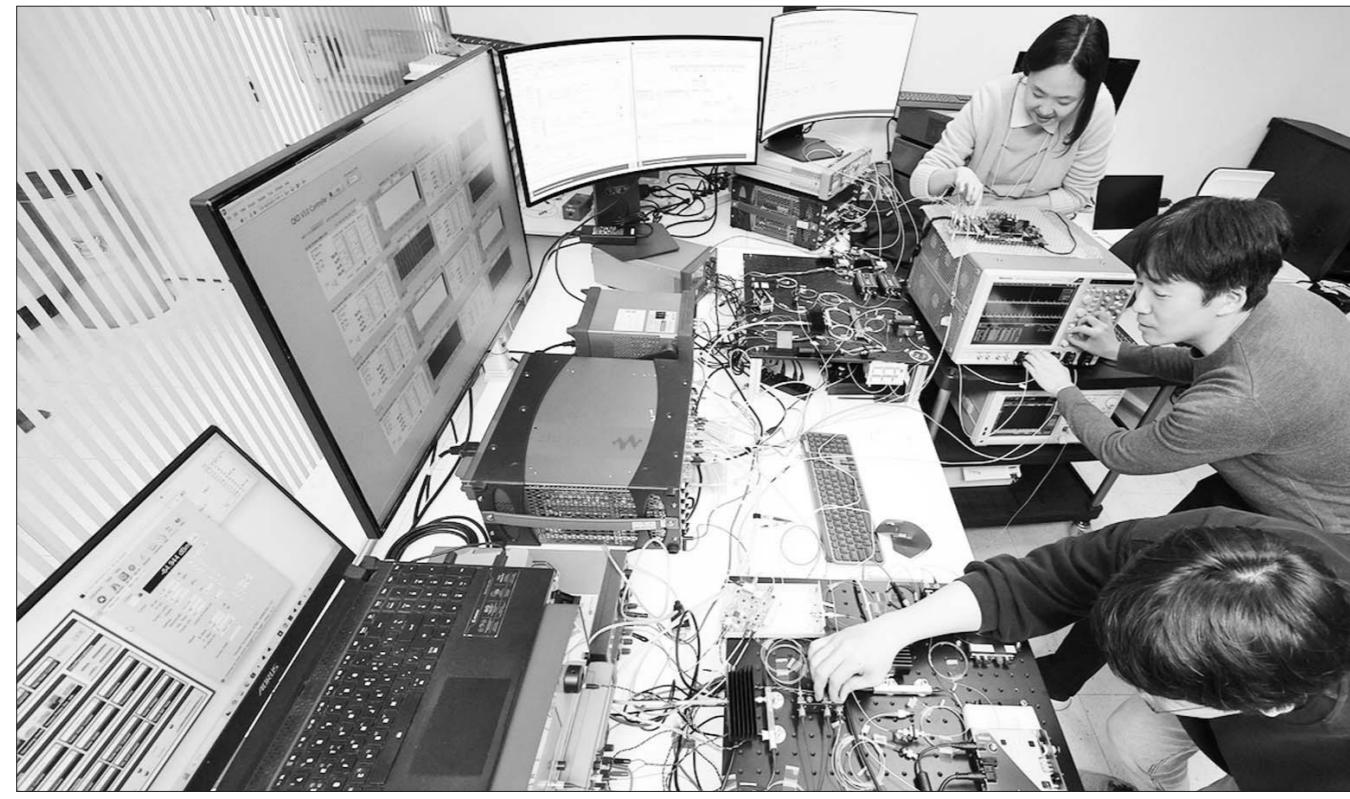
신선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1.7%가 올랐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신선야가 부모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7.9%), 신선과실(1.5%)이 상승하고, 신선제초가(-3.4%)가 하락했다.

전남 농축수산물 가격은 3.3%가 올랐는데 쌀(16.0%)과 고등어(17.2%), 돼지고기(5.8%)의 영향이 커다. 굴 14.7%, 배 30.5%, 당근 41.1%가 각각 하락했다.

서비스의 경우도 2.4%가 올랐는데 보험 서비스료가 15.3%로 광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남의 유치원 납입금(-35.5%)도 국가지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임자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KT는 3일 초당 30만개(300bps)의 암호키를 생성할 수 있는 양자 암호키 분배 장비를 자체 개발했다. 사진은 KT 직원들이 양자 암호키 분배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초당 30만개' KT, 최고속 암호키 생성 장비 개발

양자 역학적 특성·암호키 복제 불가…도청 신호 방어

KT가 지난 2024년 초당 15만개(150kbps) 속도의 양자 암호키 분배 장비를 선보인 지 1년 만에 생성률을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

KT는 3일 초당 30만개(300kbps)의 암호키를 생성할 수 있는 양자 암호키 분배 장비를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양자 키 분배시스템은 빛에너지의 최소 단위인 단일 광자를 다루기 때문에 빛의 특성인 분산이나 산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양자 상태가 쉽게 붕괴될 수 있다. KT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류 저감 필터 및 시스템을 개발해 암호키 생성 속도를 높였다.

이번 KT의 양자통신 기술은 국내 기술로 만든 양자 암호 키 분배시스템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글로벌 제조사들과 동일한 성능이다.

해당 장비를 통신망에 도입하면 1분에 7만대 이상의 암호장비에 양자 암호키를 제공할 수 있다.

양자 키 분배시스템은 빛에너지의 최소 단위인 단일 광자를 다루기 때문에 빛의 특성인 분산이나 산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양자 상태가 쉽게 붕괴될 수 있다. KT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류 저감 필터 및 시스템을 개발해 암호키 생성 속도를 높였다.

해당 필터와 시스템으로 오류를 최소화하고 원하는 시점에 양자 상태를 생성 및 검출하면 키 생성 속도를 높이고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KT는 지난해 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국내 양자통신 기술 개발 및 인증기관 대상으로 관련 기술검증을 진행했다. 또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려대통신 및 정보시스템 연구실 허준 교수 연구팀과도 공동검증을 진행했다.

이종식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연구소장은 "KT는 자체 양자통신기술 지속개발과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국내 양자산업 시장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미래 양자인터넷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대 판매 신기록 썼다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자동차 준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대 판매 기록을 새로 쓰며 세계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아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 해 판매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델 '디올 뉴 팰리세이드'의 전 세계 수출대수는 연간 10만대를 넘었다. 신형 팰리세이드의 본격적인 수출이 지난해 5월 북미 시장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8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가솔린 모델(7만3574대)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

지난해 세계 21만1200대
2세대 모델 연간 10만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핵심 요인



델(2만8034대) 까지 더해지면서 총 10만1608대를 판매했다.

미국에선 불과 녀달 만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1만대 가까이 판매됐다. 전통적 으로 큰 차를 선호하는 미국에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요 선택지로 부

고 있다.

또 신형 팰리세이드는 전장과 전고가 기존 모델 대비 각각 65mm, 15mm 늘어나

한층 여유로운 헤드룸과 레그룸으로 녀

넉한 공간감을 확보했다. 장승기 기자

도 연비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선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가 가솔린 모델을 앞섰다. 지난 한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판매수(3만 8112대)가 가솔린(2만1394대) 대비 1만7000대 가까이 더 많았다.

시장에선 현대차가 신형 팰리세이드에 처음 적용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판매 증가를 이끈 핵심 요인으로 꼽고 있다.

현대차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모터가 2개 탑재됐다.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비교하면 구동 및 회생 제동을 담당하는 구동 모터뿐 아니라 시동 및 발전, 구동력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신규 모터가 더해지면서 동력 성능과 연비를 향상시켰다.

또 신형 팰리세이드는 전장과 전고가 기존 모델 대비 각각 65mm, 15mm 늘어나

한층 여유로운 헤드룸과 레그룸으로 녀

넉한 공간감을 확보했다. 장승기 기자

삼성전자, 냉난방공조 솔루션으로 북미 공략

미국 전시회 참가…주거·상업용 AI 솔루션 공개

삼성전자는 2일부터 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 공조 전시회 'AHR 엑스포'에 참가해 북미 지역에 특화된 공조 제품과 AI 기반의 통합 기기 관리 기능을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미국 냉난방공조학회(ASHRAE)'가 주관하는 'AHR 엑스포'는 매년 1800여 개 글로벌 업체가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350m²(약 100평)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가정용부터 상업용 공간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공조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주요 전시 제품은 북미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유니터리에 인버터 기술을 적용

한 '하이렉스(Hylex) R454B' 실외기. 다양한 기후 환경에서 고효율 난방·급탕을 제공하는 히트펌프 방식의 가정용 EHS 제품인 '모노 R32(Mono R32)' 라인업. AI 기반으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용량 시스템에어컨 'DVM S2+',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 등이다.

이 제품들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냉매 전환 규제를 고려해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AHR 엑스포에 건물의 기기 를 통합 관리하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AI 기반의 B2B 솔루션 '스마트싱스 프로'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스마트싱스 프로'는 주거 공간·오피스

·상업용 빌딩 등 공간의 다양한 형태와 목적에 맞춰 높은 에너지 효율과 통합적인 공간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AI 기반의 B2B 솔루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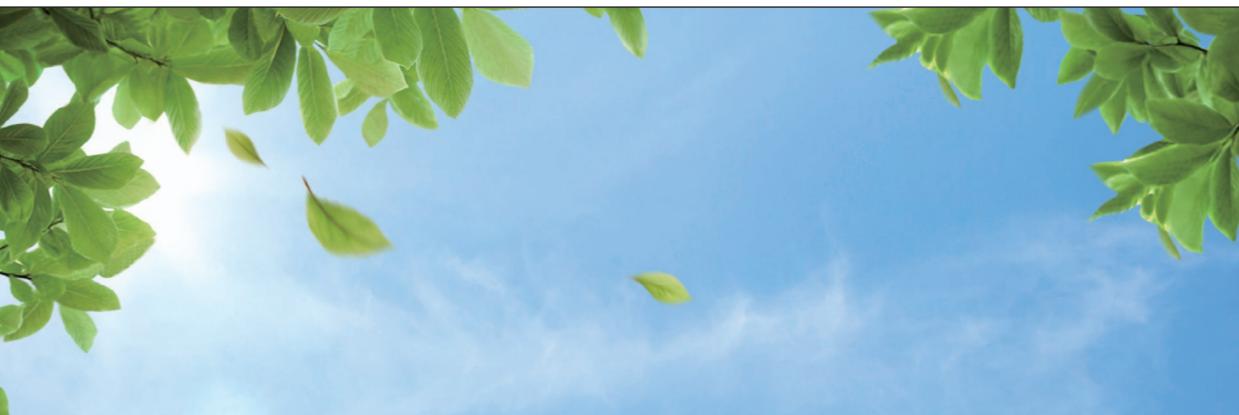
삼성전자는 실제 가정집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스마트싱스' 기반으로 연결된 가전들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 공간의 환경까지 챙겨주는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마련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4년 미국 공조업체 '레노스'와 협작법인을 설립해 북미 공조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렉트그룹'을 인수하며 글로벌 냉난방공조(HVAC)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플렉트'는 유럽, 미주를 중심으로 중동

과 아시아까지 폭넓은 판매,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초대형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